

피아니스트 이인현, 12년만에 고향무대

“더 성숙해진 연주 들려드릴게요”

미국에서 활동중인 광주 출신 피아니스트 이인현(29)씨가 고향을 떠난 지 10여년만에 고향 무대에 선다.

도쿄프라이모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출연자로 초청받아 오는 21일 도쿄 후츠노모리 예술극장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을 협연하는 이씨는 광주에서도 같은 레퍼토리로 연주를 선보인다.

이씨는 오는 25일 오후 7시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리는 광주내셔널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6회 정기연주회 '신성(新聲)콘서트' 출연자로 참여한다.

광주예술고에 재학중이던 지난 2002년 광주예고 오케스트라와 협연을 진행한 후 광주에서의 첫 공연이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닐 때 부암아트홀이나 영산아트홀 영아티스트 피아노 리사이틀 무대에 선 적은 있지만 광주에서 공연을 여는 건 12년만이라 무척 설레고 긴장도 돼요. 제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걸 보여드리는 자리라 부담도 됩니다. 오랜만에 공연하는 거라 레퍼토리도 고심했는데 베토벤의 개성이 잘 나타나 있고, 제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색깔이 많다고 생각하는 협주곡 3번을 골랐습니다.”

이씨가 처음 피아노를 시작한 것은 5살 때였다. 11살 때 니콜라이 디아디오 우라의 지휘로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무대를 가진 그녀는 이듬해 광주일보사가 주최하는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하며 두각을 나타냈다.

광주예술고를 수석으로 졸업한 이씨는 이화여대를 졸업한 후 곧바로 미국 유학길에 올랐다. 보스턴 뉴잉글랜드 콘서타토리에서 피아노 석사 과정과 우수연주자 과정을 마친 이씨는 2012년 보스턴 음대 피아노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지난 2011년 열렸던 카네기홀 데뷔 연주회는 그녀에게 잊지 못할 무대였다. 그해 열린 American Protege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에서 1위 입상하면서 주어진 연주 기회였다.

“누구나 서고 싶어하는 무대에 있을 때는 기분이 정말 좋았죠. 열심히 하니 이런 기회도 오는구나 뿌듯하기도 했구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됐습니다.”

2012년에는 International Kery-board Odysiad Competition in USA에서 3위 입상했고 존 케이지 음악을 통해 유명 연주자인 조던 홀에서 데뷔연주를 가졌다. 그밖에 아스펜 뮤직스쿨, 이탈리아 페루지 뮤직 페스티벌 등에 참가했다.

고전부터 현대음악까지 다양한 레퍼토리를 연주하는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피아니스트는 작곡가이기도 한 라흐마니노프다.

“요즘 현대 음악은 사람들이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제즈와 점프록 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주고 있어 재미있어요. 고전이나 낭만시대 음악과 달리 피아노 줄을 뿔기다든지 새로운 시도를 하는 점도 흥미로워요. 개인적으로는 라흐마니노프를 좋아하는데 그의 음악

에는 인생의 희로애락이 다 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녀는 지난해부터는 보스턴 대학에서 조교로도 활동하고 있다. 색다른 경험이다.

“늘 배우는 입장에만 있다 직접 가르치는 자리에 서니 연주에도 많은 도움이 돼요. 제가 선생님에게 배운 내용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의도를 좀 더 잘 깨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구요.”

이씨는 올해 4월 보스턴에서 독주회를 열고 5월께 서울에서도 독주회를 열 생각이다. 좀 더 성숙한 연주를 들려주고 싶다는 생각에 미뤄졌던 콘서트를 통해 피아니스트 이인현의 조금은 성장한 모습을 보여줄 생각이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이외수문학상 수상작가 원도 출신 정택진 씨



“삶의 이면에 드리워진 ‘결’ 드러내보고 싶었다”

“지금의 기본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적절한 말이 떠오르지 않네요.”

올해 ‘이외수문학상’(상금 1억원)에 선정된 정택진(52) 씨의 수상작 ‘결(해법)’이 출간됐다. 소설 발간을 계기로 광주일보와 인터뷰를 가진 정 작가는 담담하면서도 차분한 어조로 소감을 밝혔다.

“이외수문학상”은 대상(주) 청정원이 문학발전에 기여할 재능 있는 시인 작가 발굴을 위해 지난해 제정한 상으로, 중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이 이채롭다.

완도 청산도 출신답게 수상작 ‘결’은 남도 연안의 섬 청피도를 배경으로 한다. 이야기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의형제를 맺은 세 친구가 오랜만에 바다낚시를 나갔다가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하는 데서 서사가 전개된다.

“구조를 기다리는 동안 세 친구의 지나온 삶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과거와 현재를 만나면서 전개되는 이야기에는 광주 민중화 운동, 경제성장사 사회변화 등 한국 현대사의 단면이 고스란히 펼쳐져지요.”

전통적 서사 양식이기 때문에 스토리 전개 방식은 다소 평이하다. 그러나 맛깔스러운 문장과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로 읽는 맛이 쏠쏠하다.

“함께 나고 자란 고향 친구도 각기 살아온 결이 다르듯이 우리 삶의 이면에 드리워진 다채로운 결을 드러내보고 싶었어요. 배가 결을 타야 바다에 떠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살이도 결대로 사는 게 순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소설 제목처럼 ‘결’은 다양한 의미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정 작가 ‘삶의 결’은 어떤했을까? 그의 삶 또한 소설처럼 다소 특이한 점이 없지 않다. 청산도에서 나고 자랐지만 경북 구미 금오공고를 졸업했다. 이후 5년 간 하사관으로 복무했으며 전역 후 성균관대 국문과에 진학했다.

“함께 나고 자란 고향 친구도 각기 살아온 결이 다르듯이 우리 삶의 이면에 드리워진 다채로운 결을 드러내보고 싶었어요. 배가 결을 타야 바다에 떠있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살이도 결대로 사는 게 순리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는 앞으로도 꾸준히 소설을 쓸 작정이다. 가장 잘 쓸 수 있는 소재가 ‘섬’이므로 섬에 관한 이야기를 특화하고 싶다. 섬에 한정되면 재미가 반감되기 때문에 섬을 근거로 인간의 삶이 담긴 보편적 서사를 구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정 작가는 “작품에는 섬 사투리가 많아 독자들이 읽기에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책을 내는 과정에서 손질을 했지만 독자들이 인내심을 갖고 읽어주었으면 한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박성천기자 skypark@

25일 광주내셔널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성콘서트' 협연 호남예술제 최고상 수상... 보스턴대학 박사과정 재학 라흐마니노프 가장 좋아... 보스턴·서울서 독주회 예정



2011년 미국 카테기홀 데뷔 연주회 모습

‘광주내셔널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인음악인 발굴 첫 콘서트

호남예술제 출신 남린·김은선 협연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민간교향악단 광주내셔널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신인음악인 발굴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신성콘서트를 진행한다.

지난해 오디션을 거쳐 선발한 10명의 연주자는 초등학생부터 대학원생까지 다양하다. 25일 오후 3시, 7시 두차례 열리는 신성콘서트에는 호남예술제 출신 남린양을 비롯해 모두 10명이 무대에 오른다. 지휘는 그레신 음대 지휘과를 수석 졸업하고 서울 아모르필하모니오

케스트라를 이끌고 있는 라현수씨가 맡는다.

오후 3시 무대에 서는 남린(조봉초 3년)양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지난 2012년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수상했다. 이후 광주 금호아트홀이 진행한 제4회 금호주니어콘서트 오디션에 합격 독주회를 갖기도 했던 남양은 이번 무대에서 브루흐의 '바이올린협주곡 1번'을 들려준다. 남양은 도쿄프라이모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에서도 같은 곡을 협연한다.

7시 무대에 오르는 김은선(광주예고)양 역시 지난해 호남예술제 피아노 부

문에서 최고상을 수상한 인재다. 올해 광주예술고등학교에 수석 입학한 그녀는 이번 연주회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3번' 1악장을 들려준다.

한편 이날 연주회에는 이채인(서원중 2년·바이올린), 안신애(목포대 음악과 3년·첼로), 백현진(백현중 1년·바이올린), 김수영(분당초 재학·바이올린), 이진영(목포대 음악과 3년·트럼펫), 이제린(바이올린·졸리어드 음대 예비학교 진학 예정), 김나은(바이올린·선화예술학교 재학) 양도 무대에 선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특이방수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시험회 **트라이슈머**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단열복합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시공과정: 1. 시공전 / 단열베이스카펫시공, 2. 단열베이스카펫 / 트라이슈머시트시공, 3. 트라이슈머 막코팅 시공, 4. 옥상 시공 후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 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듯~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품디자인으로 바뀌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이공법!!

배란다 시공전 시공후

본사 전속모델 **이영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IPALG® **광주전남대리점**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